

청년기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기대

박 분 희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청년기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청년기 자녀가 아버지의 기대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목포대학교 3학년 학생들로 남학생이 103명, 여학생이 147명으로 총 250명이었다. 피험자의 출생순위는 맏이가 80명, 중간 순위가 85명, 막내가 85명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부모의 기대 수준, 기대감의 표현 방법(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 기대 내용,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대감을 표현하는 상황, 아버지의 기대에 대한 자녀의 만족도 등을 측정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기대 내용 중 직업 선택과 배우자 선택 그리고 기대 형성 요인 중 학업성적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아버지의 기대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른 결과에 의하면 기대 표현 방법 중 신체적 표현과 기대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의 문항에서 중간순위의 자녀가 막내보다 아버지의 기대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 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 기대 표현 방법 중 남에게 과장되게 자랑하는 방법에서, 기대 내용 중 직업 선택과 배우자 선택에서, 기대 표현 상황 중 자녀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와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핵심어 : 아버지의 기대 · 청년기 · 기대 표현

인간은 독특하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련된 기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한다. 이러한 기대는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적절히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타인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 주기를 원하며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특히 그 타인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부각 될 때 이러한 욕구는 더 커진다.

타인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학문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Rosental과 Jacobson(1968)의 "교실 안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책이 나오기 부터이다. 이들의 주장은 교사의 기대가 자기충족적 예언의 효과(self-fulfilling prophecy)를 발휘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

취도를 높인다는 것이다(임중삼, 1997).

Rosental 과 Jacobson(1968)의 연구는 학제와 교육계의 열광적 환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 비평가들(Snow, 1969; Taylor, 1970)의 공격을 받게 되고 Rosental 과 Jacobson의 연구를 그대로 따라 실시한 연구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함에 따라 교사의 기대가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당초의 신념이 열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나 증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기대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충족적 역할이나 작용을 한다는 것은 부인 할 수가 없다(Braun, 1976; Brophy & Good, 1974). 그러나 Brophy 와 Good(1974)은 피그말리온이라는 말이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어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기대를 하기만 하면 그것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혹은 어떤 신비하고 요술과 같은 힘이 작동하여 기대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자기충족적 예언의 참뜻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요약컨대 이들의 주장은 자성예언의 효과란 신비스러운 힘의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이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대의 형성 요인, 전달 경로 등을 검증하는 연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인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대한 논쟁은 1980년대 말까지 계속 되면서 '자성예언의 효과',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Brophy, 1983; Cooper & Tom, 1984; Feldman & Prohaska, 1979; Wigfield & Harold,

1992).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교육계 특히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상호간의 기대는 어떤 형태의 인간관계에도 적용 될 수 있고 특히 상대를 의미 있는 타인으로 인식할 때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가정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상호간에 갖는 기대를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기초하여 청년기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기대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청년기 자녀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첫째, 청년기는 성인기의 준비 단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의 기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들어서 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Allen & Bell, 1995).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청년기의 발달에서 자율만을 강조해 왔으나 최근에 들어 발달심리학에서 청년기 동안에도 자율이라는 요소 못지않게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같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기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청년기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생활은 성인기의 직업을 준비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직업선택과 관련된 연구(Wijting, Arnold & Conrad, 1978)에 의하면 청년기에는 남녀 모두가 아버지의 직업적 가치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을 함으로써 대학생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80년대 초반 이래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념에 관해서 포괄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Goodnow, 1984; Miller, 1988; Seginer, 1983). 이러한 연구 중에는 부모의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탐구되었다. 부모의 기대 형성에는 자녀 변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변인과 자녀 변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정 하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양자의 측면에서 이해 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자녀 변인과 부모 변인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자녀 요인

부모의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요인은 무엇인가? 그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자녀의 성별은 부모의 기대감 형성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Block(197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는 딸보다는 아들에 대해서 성취력에 대해서 더 높은 기대를 갖는 경향이 있다(박성연외, 1996 재인용). Hoffman(197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들은 아들에 대해서는 야망 있고

지적이고 독립적이고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하며, 딸에 대해 부모가 기대하는 것은 친절하면서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결혼을 잘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었다.

양부모 중에서도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더욱 다른 기대를 하게 되며 이 결과로 아버지들은 아들과 딸을 다르게 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학자도 있다(Hetherington, 1970).

Frisch(1977)에 의하면 많은 연구들이 오늘날과 같이 개방된 사회에서도 남아와 여아를 다르게 기대하며, 이 결과로 양자를 다르게 훈육한다고 지적한다(이영·조연순, 1997 재인용). 국내의 연구 결과들도(김진숙, 1983; 오연옥, 1987; 이석경, 1988)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정옥분, 1998 재인용).

둘째, 부모의 기대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자녀 변인으로는 출생 순위를 들 수 있다. Zajonc(1983)는 부모들은 장남이나 장녀에게는 과도하게 높은 기대를 하여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외동이기도 이와 비슷한 기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albo & Polit, 1986; Thomas, Coffman & Kipp, 1993). 그러나 둘째 이후의 출생순위에 대한 연구 결과에는 일관성이 없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장남 스트레스'가 있을 정도로 출생순위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장남에게 거는 기대는 막중하고 높은 것으로 '집안의 기둥'이라거나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거나 '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큰 기대가 주어진다. 이에

반해 막내는 여리고 순해서 부모가 늘 도와 주어야 하는 존재로 기대되어 진다. 그래서 부모의 절대적인 정서적 지원을 받는 쪽은 막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의 출생순위를 가진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이런 유별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서는 늘 소외감을 경험하고 자신이 자신의 몫을 챙기는 적극적인 성격 소유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부모의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변인은 자녀의 연령(Entwistle & Hayduk, 1978; Knight, 1981) 자녀의 수(Goodnow, 1984) 등이 있다.

부모 요인

부모의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 변인 못지 않게 부모 자신의 특성, 교육 정도, 경험의 질,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업은 중요 변인으로 간주된다. Kohn(1963, 1969)에 의하면 모든 부모는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부모들 각각은 자기 자녀가 성공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성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아버지의 직장 환경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필요로 할 경우 아버지는 자녀에게도 그런 특성을 강조하며, 아버지의 직장 환경이 명확한 지시와 규율을 필요로 할 경우에 자녀에게도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강조하게 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양한 측면의 기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Luster & Kain, 1987; Schaefer & Edgerton, 1985; Segal,

1985).

둘째, 부모가 형성하고 있는 비형식적 사회적 관계 망은 자녀에 대한 기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Cohen(1981)은 부모가 사회적 관계 망을 사용하여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그들 자녀에 대한 기대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Clarke-Stewart(1978)에 의하면 전문가로부터의 조언도 자녀의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정옥분, 1998 재인용).

이상의 내용은 가정 외적인 특성이 부모 자신의 기대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다. 그러나 가정 내적인 요인 또한 자녀에 대한 기대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의 특성 (Reis, 1988; Rossi, 1980) 이나 결혼 관계(Cox et al., 1989) 등도 기대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상과 같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변인은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은 문화권에서는 훨씬 그 양상이 복잡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기대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버지의 기대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버지의 기대는 아버지의 직업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방법

대 상

본 연구의 대상은 목포대학교 3학년 학생들로 남학생이 103명, 여학생이 147명으로 총 250명이었다. 피험자의 출생순위는 맏이가 80명, 중간순위가 85명, 막내가 85명이었다. 외동이(5명)는 맏이로, 두자녀 중 둘째(12명)는 막내로 분류하였다.

도 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설문지로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이론(Goodnow, 1984; Miller, 1988; Seginer, 1983)에 기초하여 본 연구자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작하였다. 설문 작성을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예비 설문을 통해 아버지의 기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본인의 아버지는 어떤 유형의 기대를 하는지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가족관계학을 전공한 교수 2명의 자문을 거쳐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설문지는 아버지의 기대에 대한 청년기 자녀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10개 영역으로 총 문항 수는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구체적 내용과 응답방식, 채점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영역은 아버지의 기대수준(1문항)을 재는 것으로 3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1~3 점으로 채점하였다. 제2,3영역은 기대표현 빈도(1문항)와 고교시절의 기대수준과 현재의 기대수준을 비교(1문항)하는

것으로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1~4점으로 채점하였다. 제4, 5영역은 기대수준에 대한 만족도(1문항)와 자신에게 미친 영향(1문항)을 재는 것으로 5점 척도이며 1~5점으로 채점하였다. 제6, 7영역은 자녀가 아버지의 직접적, 간접적 기대표현 방법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재는 것으로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8영역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기대내용을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9영역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대감을 갖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4문항으로 되어있다. 제10영역은 아버지가 기대감을 표현하는 상황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5개 문항으로 되어있다. 6~10영역의 문항은 '예-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점방식은 '예'는 1점, '아니오'는 0 점으로 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아버지의 기대에 대한 청년기 자녀의 전체적인 지각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지각 차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하였고 자녀의 출생순위별, 아버지의 직업순위별 지각 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변량분석(ANOVA)을 하였다. 그리고 변량분석의 결과 집단간(자녀의 출생순위별, 아버지의 직업순위별)에 유의한 차가 있는 경우 Scheffe 사후검증을 하였다.

결 과

연구 결과는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아버지의 기대에 대한 청년기 자녀의 지각실태(빈도분석 결과)와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결과,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수준에 따른 결과로 구분하였다.

아버지의 기대에 대한 자녀의 지각 분석

다음 <표1>은 아버지의 기대에 대한 청

년기 자녀의 전체적인 지각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의 6~10 영역의 결과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만을 제시하였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 수준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적절하다가 52%, 높다가 39.2%, 낮다가 8%로 적절하다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 수준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은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기대감

표 1. 아버지의 기대에 대한 자녀의 지각 분석

설 문 내 용	응 답 내 용(%)
기대수준	높다(39.2), 적절하다(52.0), 낮다(8.8)
기대수준 만족도	매우만족(1.6), 만족(18), 보통(34), 불만족(41.6), 매우불만족(4.8)
직접적 기대표현방법	훌륭한 사람이 되라(3.6), 누구처럼 되라(2.8), 어떤 직업인이 되라(34), 너만 믿는다(41.6)
간접적 기대표현방법	성공한 사람들과 관련된 신문기사나 책등(36), 물질적인 수단(19.2) 신체적 चेस्च(38.8), 타인에게 과장되게 자랑(33.6)
기대 표현 빈도	거의 매일(4.4), 자주(72.4), 1년에 한두번(13.6), 표현하지 않음(9.6)
기대내용	직업선택(80.8), 배우자선택(21.6), 경제적 부(24.8), 훌륭한 인격(41.2) 국가나 사회봉사(4.4)
기대형성요인	태도나 성격(57.6), 출생순위(13.6), 성실성(35.6), 학업성적(56.4),
기대감을 표현하는 상황	부모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20.5), 자녀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14.4) 다른 집 자녀의 성공담을 들었을 때(27.2)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42.8) 평상시 가족간의 대화 중시(44.8)
고교시절과 현재의 기대수준	변함이 없다(32), 더 높아졌다(28.4), 더 낮아졌다(25.6) 잘 모르겠다(14)
자신에게 미친영향	매우긍정적(0.4), 긍정적(4.8) 보통(30), 부정적(56.8), 매우 부정적(8)

을 표현 할 때 어떤 형태의 표현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 '너만 믿는다' 41.6%,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라' 라는 표현이 34%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표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신체적 제스처가 38.8%, 성공한 사람들과 관련된 신문기사나 책 등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36%, 그리고 타인들에게 자녀를 과장되게 자랑한다고 지각하는 비율이 33.6%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주로 어떤 내용의 기대를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직업 선택에 관한 기대가 80.8%로 가장 많았으며 훌륭한 인격 형성이 41.2%, 경제적 부를 쌓는 것이 24.8%, 배우자 선택에 관한 기대가 21.6%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은 부모의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를 알아본 것이다. 성격과 태도가 57.6%, 학업성적이 56.4%, 성실성이 35.6%로 나타났다.

주로 아버지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대감을 표현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평상시 가족간의 대화 중에는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표현하는 비율은 42.8%, 다른 집 자녀의 성공담을 들었을 때 표현한다는 응답이 27.2%로 나타났다.

부모의 기대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6.8%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보통의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학생이 30%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다음에 제시하는 <표2>는 모든 영역의 결과를 다 제시하지 못하고 유의한 차가 검증된 문항이 포함된 영역에 대한 결과만을 제시 하였다.

<표2>는 자녀가 아버지의 기대를 지각

표 3.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지각 분석

측정내용		말이(N=80) 평균(SD)	중간(N=85) 평균(SD)	막내(N=85) 평균(SD)	F
간접적 기대표현방법	성공한 사람들의 기사	.33(.47)	.39(.49)	.36(.48)	.31
	물질적 수단	.15(.36)	.20(.40)	.22(.42)	.69
	신체적 제스처	.37(.49)	.49(.52)	.31(.46)	3.34*
	과장된 자랑	.35(.48)	.29(.46)	.36(.48)	.54
기대표현상황	부모가 어려운 일에 직면	.23(.42)	.15(.36)	.22(.42)	.95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할 때	.18(.42)	.13(.34)	.18(.41)	.43
	다른집 자녀의 성공담을 들었을 때	.21(.41)	.31(.46)	.31(.46)	1.36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45(.53)	.53(.50)	.34(.48)	3.01*
	평상시 가족간의 대화 중에	.54(.50)	.41(.50)	.40(.49)	1.92

*p<.05

표 2.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지각 분석

	측정내용	남(N=10) 평균(SD)	여(N=147) 평균(SD)	t
기대내용	직업선택	.73(.45)	.86(.34)	-2.60**
	배우자선택	.16(.36)	.26(.44)	-2.02*
	경제적 부	.30(.46)	.21(.41)	1.59
	훌륭한 인격	.39(.49)	.43(.50)	-.63
	사회 봉사	.08(.24)	.03(.18)	.92
기대형성요인	태도	.25(.44)	.26(.44)	-.11
	출생순위	.16(.39)	.10(.30)	1.21
	성실성	.35(.48)	.39(.57)	-.56
	학업성적	.29(.46)	.44(.50)	-2.48*

**p<.01, *p<.05

하는데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직업
선택과 관련된 기대에서는 남녀간에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배우자
선택에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다.

기대 형성 요인에 있어서는 학업성적
면에서만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다. 즉 딸이 아들에 비해서 학업성적
을 아버지의 기대감 형성 요인으로 더 중

표 4. 아버지의 직업수준에 따른 지각 분석

	측정내용	상(N=35) 평균(SD)	중(N=99) 평균(SD)	하(N=116) 평균(SD)	F
간접적	성공한 사람들의 기사	.43(.50)	.40(.49)	.30(.40)	1.63
기대표현방법	물질적 수단	.23(.43)	.21(.41)	.16(.37)	.57
	신체적 제스처	.46(.51)	.38(.49)	.37(.49)	.43
	과장된 자랑	.17(.38)	.30(.46)	.41(.49)	4.02*
기대내용	직업선택	.83(.38)	.73(.46)	.87(.34)	3.66*
	배우자 선택	.40(.50)	.19(.39)	.19(.39)	4.16*
	경제적 부	.14(.36)	.23(.42)	.29(.46)	1.74
	훌륭한 인격	.49(.51)	.47(.52)	.34(.47)	2.59
	사회 봉사	.09(.29)	.08(.27)	.03(.16)	2.89
기대표현 상황	부모가 어려운 일에 직면	.20(.41)	.16(.37)	.24(.43)	1.09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할 때	.34(.59)	.17(.38)	.10(.30)	5.69**
	다른집 자녀의 성공담을 들을 때	.14(.36)	.27(.45)	.31(.47)	1.97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63(.55)	.42(.50)	.39(.49)	3.07*
	평상시 가족간의 대화 중에	.51(.51)	.46(.50)	.42(.50)	.58

**p<.01, *p<.05

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자각 차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3>의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의 간접적 기대 표현 방법 중 신체적인 제스처를 사용하는 면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가 검증되었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이 차이는 중간 순위의 집단과 막내 집단간의 차이로 검증되었다.

다음은 아버지가 기대감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기대감을 표현한다는 항목에서 출생순위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간에 차이 인가를 Scheffe 검증법으로 분석한 결과 중간순위 집단과 막내 집단간의 차이로 나타났다. 즉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아버지가 기대감을 표현한다는 항목에서 중간순위의 자녀 점수가 막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

<표4>는 아버지의 직업 수준(상, 중, 하)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기대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것이다.

<표4>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대감을 표현하는 간접적 방법중 남에게 자신의 자녀를 과장되게 자랑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상위집단과 하위 집단간의 차이로 증명되었다. 하위 집단이 상위 집단보다 이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음은 부모의 직업 수준에 따라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직업 선택과 배우자 선택 내용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 선택에 대해서는 하위 집단이 중간 집단에 비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는 상위 집단이 중위 집단이나 하위 집단에 비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로 기대를 표현하는 상황에 있어서 아버지의 직업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표4>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두 상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자녀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기대감을 표현하는 항목에서 집단간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이것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간의 차로 드러났다. 즉 상위 직업 군에 속한 아버지들이 하위 직업 군의 아버지들 보다 자녀가 잘못된 일을 저지른 상황에서 더 자주대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기대감을 표현하는 항목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검증 결과 상위집단은 중위집단이나 하위집단에 비해서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더 자주 기대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논 의

이상의 결과는 아버지의 기대에 대한 청년기 자녀의 지각 실태와 이러한 기대

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자녀의 성별, 출생순위,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연구 결과의 제시 내용에 따라 네 가지 측면에서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에 대한 논의로 우선 아버지의 기대 수준에 대한 자녀의 반응은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비율(19.6%)에 비해 불만족 하는 비율이 46.4%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버지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자녀의 능력에 비해 너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표 1>의 첫 번째 문항의 결과로도 증명되었다. 여기에서 기대 수준이 낮은 경우(4.8%)보다는 높다는 반응이 39.2%로 나타나 결국 아버지의 기대 수준이 자녀의 능력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자녀들은 불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기대가 결국 성인기를 준비하는 대학 3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신체적으로는 독립된 존재이나 경제적, 심리적으로 부모와 아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지의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이다. 이러한 부모 자녀의 관계는 청소년기에 끝나게 아니라 청년기까지 연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는 청년기에 접어든 자녀에게도 여전히 부정

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의 응답 결과 아버지의 기대가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학생이 64.4%나 되었으며 긍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은 5.2%에 불과했다.

이 결과로 논의 할 수 있는 문제는 부모의 기대 수준은 자녀의 현재의 발달 상태나 성취정도등에 따라서 변화되어야만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표 1>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기대 수준은 자녀의 고교시절에 비해 변함이 없다가 32%로 나타나 부모들은 자녀에게 형성된 기대를 쉽게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 아버지가 대학생 자녀에게 갖는 기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직업 선택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가나 사회에 봉사하는 것에 대한 기대는 4.4%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학생의 취업이 어려운 결과 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유별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를 대학 진학시키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을 염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대 내용에서 국가나 사회봉사에 대한 기대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극단적 가족 이기주의적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국가나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이런 일 대신에 자녀의 개인적 삶에 대해서만 많은 기대를 갖는 것 같다.

둘째,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아버지의 기대에 대한 지각이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이다.

기대 내용에서 보면 직업 선택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들과 딸에게 차이 있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들보다는 딸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Hoffman(1977)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런데 이 결과는 우리나라 여건상 여대생의 취업이 남학생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모가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결과로 생각된다.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는 아들보다는 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Hoffman(1977)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 점이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딸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는 것을 희망하는 아버지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로 추론된다.

부모의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자녀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학업성적 요인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로 추론 할 수 있는 것은 설문에 대한 응답 주체가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부모의 신념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자녀 자신의 신념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즉,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학업성적을 중시하는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 이러한 질문을 직접 아버지에게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논의는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기대에 대한 지각 차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아버지

는 자녀에 대해 기대를 형성하거나 그것을 표현하는데 출생순위는 그다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Zajonc(1983)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논의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아동기에는 자녀의 여러 측면의 발달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는 주로 생물학적 요인에 기초하여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청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적 성취를 이루기 때문에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경험적 요인이 부모의 기대 형성에 더 크게 작용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추론된다.

넷째,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를 아버지의 직업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다.

<표4>에 의하면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기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과장되게 자랑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Khun(1963, 196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낮은 지위에 대한 보상으로 타인들에게 대학생 자녀를 과장하게 자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기대 내용에서 볼 때 상위직업을 가진 아버지 집단이 중위나 하위직

업을 가진 아버지 집단에 비해 자녀의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버지의 직업 수준은 결국 가정의 경제력, 부모의 교육 수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상위집단의 아버지들은 어느 정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충족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자녀에게도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버지가 기대감을 표현하는 여러 상황에서 상위집단의 아버지가 중위 집단이나 하위집단의 아버지에 비해 자녀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거나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주로 기대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하위집단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다른 집 자녀의 성공담을 들었을 때 주로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것은 상위집단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자신과는 별개의 주체적 존재로 지각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기대를 표현하는 것은 결국 자녀의 삶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집단의 아버지가 갖는 기대는 자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자녀를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250명의 목포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라는 제한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흔히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수준과 그 기대의 영향력은 청소년기가 벗어나면 점점 더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청년기까지도 부모의 기대 수준은 매우 높으며 이것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청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기대관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 수준은 너무 높아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기대 수준과 내용은 자녀의 발달 상태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되어야만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들의 기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 결과로 우리가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기대 표현의 방법 중에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대를 갖게 되는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녀 요인 뿐만 아니라 부모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을 상호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박성연 · 도현심 · 정승원 공역(1996). 부모-자관계. 학지사.
이영 · 조연순 공역(1997). 영·유아발달. 양서원.

- 임종삼 (1997).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상호기대 요인 분석. 목포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옥분 (1998).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 Allen, J. P., & Bell, K. L., (1995, March). Attachment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s and peers in adolescenc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 Braun, C. (1976). Teacher expectation: Sociopsychological dynamic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2). 185-213.
- Brophy, J. E. (1983). Research on the self-fulfilling prophecy and teacher expect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5). 631-661.
- Brophy, J., & Good, T. (1974) "Brophy-Good System (Teacher-Child Dyadic Interaction)" In *Mirrors for Behavior: An Anthology of Observation Instruments Continued*, ed. A. Simon and E. Boyer. Philladelphia : Research for Better Schools, Inc.
- Cooper, H. M., & Tom, D. Y. H. (1984). Teacher expectation research: A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classroom instruction.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5(1), 77-89.
- Cohen, G. (1981). Culture and educational achievement. *Harvard Educational Review*, 51(2), 270-285.
- Cox, M. J., Owen, M. T., Lewis, J. M., & Henderson, V. K. (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0, 1015-1024.
- Entwisle, D. R., & Hayduk, L. A.(1978). Academic expectations and the school attainment of young children. *Sociology of Education*, 54, 34-50.
- Falbo, T., & Polit, D. F. (1986). Quantitative review of the only-child literature: Research evidence and theory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0, 176-189.
- Feldman, R. S., & Prohaska, T. (1979). The student as Pygmalion: Effect of student expectation on the teache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4). 485-493.
- Goodnow, J. J. (1984). Parents' ideas about parenting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and recent work. In M. E. Lamb, A. L. Brown, & B. Rogoff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Vol. 3, pp. 193-24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etherington, E. M. (1970). Sex typing, dependency and aggress-

- tion. In T. D. Spencer & N. Kass (Eds.), *Perspectives in child psychology: Research review*. New York: McGraw-Hill.
- Hoffman, L. W. (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2(8), 644-657.
- Knight, R. (1981). Parents' beliefs about cognitive development: The role of experience. In A. R. Nesdale, C. Pratt, R. Grieve, J. Field, D. Illingworth, & J. Hogben(Eds.),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research: Theory and research* (pp.226-229). Perth: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Press.
- Kohn, M. L. (1963). Social clas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 interpret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XVIII, 471-480.
- Kohn, M. L. (1969).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 Homewood, IL: The Dorsey Press.
- Luster, T.,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 301-311.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their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Reis, J. (1988). Child-rearing expectations and developmental knowledge according to maternal age and pari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9(4), 287-304.
- Rosenthal, R., & Jacobson, L. (1968). *Pygmalion in the Classroom: Teacher Expectation and Pupils' Intellectual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Rossi, A. S. (1980). Aging and parenthood in the middle years. In P. Baltes & O. G. Brim, Jr.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137-205). New York: Academic Press.
- Schacfer, E. S., & Edgerton, M. (1985). Parent and child correlates of parental modernity.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287-31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egal, M. (1985). A study of maternal beliefs and values within the context of an intervention program.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271-28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eginer, R. (1983). Parents'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s: A literature review. *Merrill-Palmer Quarterly*, 29(1), 1-23.
- Snow, R. E. (1969). Unfinished Pygmalion. *Contemporary Psychology*, 14, 197-199.
- Taylor, C. (1970) "The Expectations of Pymalion's Creators." *Educational Leadership*, 28, 161-164.
- Thomas, C. W., Coffman, J. K., & Kipp, K. L. (1993, March). Are only children different form children with siblings?. A longitudinal study of behavioral and social functioning.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 Wigfield, A., & Harold, R. D. (1992). Teacher beliefs and children's achievement self-perception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D. H. Schunk, & J. L. Meece (Eds.), *Student perceptions in the classroom*. NJ : LEA. 95-121.
- Wijting, J. P., Arnold, C. T., & Conard, K. A. (1978). Generational differences in work valu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between boys and gerls across grade levels, 6, 9, 10 and 12.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 245-260.
- Zajonc, R. B.(1976). Family con-figuration and intelligence. *Science*, (4236). 227-236.

A Study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ir Fathers' Expectations

Bun-Hee Park

Department of Educ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adolescent children perceive their father's expectations of them. A total of 250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consisted of 103 male students and 147 female students, who are Juniors at Mokpo National University. In regard to their birth orders, 80 of the subjects are first-born children, 85 are middle-born children, and 85 are the youngest-born children. The research instrument consisted of 6 questionnaires areas which are the level, the expressed ways and circumstances, the affected factors, children's satisfaction about father's expect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the meaningful differences of gender, female students perceived higher than male students about father's expectation in school records which are in choosing children's future job as well as their spouses. In the meaningful difference of the birth orders, the middle children perceived more father's expectations than the youngest children when they faced to do important work. In the meaningful difference in father's profession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questionnaires. They were the way of their exaggeration, the ways of choosing their future job and spouses, the ways of expressing circumstances fathers' expectations, when their children do something wrong or face something important.

Keywords : fathers' expectations • adolescent • expectation expression.